

WHAT NOBODY SAW

FERDINANDO FREGA

FERDINANDO FREGA

아무도 보지 못한 것

The Art of Attraction · 03

흔히 여자들은, 나이가 몇이든 어떤 커플 곁을 지나치게 되면 그 커플을 어울리지 않는다고 단정해 버리고, 그다음에 나오는 말은 언제나 똑같다. 방금 지나간 저 두 사람 봤어? 여자가 어쩔 저렇게 못생겼니 — 대체 어떻게 저런 잘생긴 남자를 잡은 거야?

의심과 호기심이 그들을 집어삼킨다. 자질은 결코 드러나지 않고 수량은 결코 신고되지 않기 때문이다 — 경찰차의 호위를 받는 현금 수송차처럼. 그 안에 무엇이 실렸는지는 아무도 모른다.

내 글과 조금 비슷하다. 하하하하하하.

사람을 알아 가는 나의 방식은 바로 이 생각 위에 세워졌다.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, 어느 날 저녁 시내의 한 건물 12층, 댄스파티가 열리던 테라스에서, 키 크고 몸집 좋고 땀에 젖은 한 여자아이가 다가와 나에게 블루스를 추자고 청했다.

주위의 남자애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— 내가 그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,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. 그들 거의 모두가 이미 그녀를 거절했기 때문이다. 나는 그걸 몰랐다.

춤을 추며 대화가 시작되자, 그녀의 입 냄새가 썩 좋지는 않았지만 나는 모르는 척했다. 우리는 저녁 내내 함께 춤을 추었고, 나는 귀를 기울였다. 그러다 그녀가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했다. 그녀는 오토바이를 무서워해서, 나는 그녀를 기쁘게 해주려고 2킬로미터를 걸었다.

그녀는 내 뺨에 입을 맞추고 다음 날 만나자고 했지만, 나를 떠나기 전에 내가 단 한 번도 수작을 걸지 않은 게 고마웠다고 말했다.

나는 2킬로미터를 걸어 오토바이로 돌아갔다. 그 저녁이 — 그리고 그 테라스의 다른 여자아이들이 —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았지만, 어떻게든 해냈다.

친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.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어 했다. 내가 나에 대해 말하는 걸 한 번도 좋아한 적 없다는 걸 아는 터라, 나는 그저 이렇게 말했다. 괜찮은 애야.

그런데 개가 누군지 알아? 아니.

남부 이탈리아에서 제일 큰 엔지니어링 공장 공장장의 딸이야. 돈이 넘쳐나.

그래서?

그들은 어안이 빙빙했다. 나는 오토바이에 올라 집으로 갔다.

닷새 뒤 나는 시내의 한 카페에서 우연히 그녀와 마주쳤지만,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. 변해 있었다.

그녀는 왜 자기를 찾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— 어쨌든 나는 그녀가 어디 사는지 알았고, 지금쯤이면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분명 알아냈을 테니까.

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. 그런데 넌 내가 도대체 누군지 알아?

그녀는 멈칫했다. 눈이 휘둥그레졌고, 충격을 받은 채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다. 너는 누군데?

나는 그냥 파티에서 너랑 춤추고 집까지 바래다준 녀석이야.

45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친구다. 그녀는 결혼해서 벌써 할머니가 되었다. 우리는 서로 전화하고 안부를 주고받으며, 이 모든 세월이 지난 뒤 그녀는 나의 내러티브를 읽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.

존재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 누군가, 하지만 세상의 모든 여자를 춤추게 하는 누군가.

Ferdinando